

2019년 5월 16일

서부T&D (006730.KQ/Not Rated /CP:9,840원)

Comment

손세훈 (02-768-7971)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1분기 실적은 호텔 객실 점유율 증가로 양호한 실적 발표. 국내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 수와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호캉스 시즌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 호텔부분은 BEP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1분기 예상대로 턴어라운드

-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269억원(+28.1 y-y), 영업이익 8억원(흑자전환 y-y) 달성. 인천 스퀘어1 쇼핑몰이 86억원(+2.58% y-y), 영업이익 54억원(+45.9% y-y)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 기록 중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매출액은 144억원(+67.86% y-y), 영업이익은 -44억원(적자지속)을 기록. 2018년 1분기 영업이익은 -86억원에 달했지만 객실점유율 증가로 적자 축소. 호텔업의 특성상 1분기가 비수기이고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영업적자는 양호한 수준

- 호텔에 유리한 외부 환경

- 국내 입국하는 해외관광객은 2019년 3월 15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전월대비 27.8% 증가. 일본 입국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27.4%, 중국 입국자 수가 20.9% 증가
- 해외 관광객 수 증가와 국내 여행객들의 호캉스가 이어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객실 점유율은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2분기 예상 객실점유율은 50% 중반대로 2분기에는 호텔부분 BEP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매출액은 1,349억원, 영업이익은 261억원으로 추정. 19년 예상 PBR은 0.9배 수준. 동사의 주가는 객실 점유율 증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기회라는 판단

서부T&D 1분기 실적 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18	2Q18	3Q18	4Q18	1Q19P					2Q19E
					발표치	y-y	q-q	당사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21.0	24.5	28.1	34.5	26.9	28.1	-22.0	26.2	28.2	30.5
영업이익	-4.9	-4.9	-0.7	10.5	0.8	흑전	-92.4	0.2	2.4	1.9
영업이익률	-23.1	-20.1	-2.5	30.4	2.9			0.8	8.5	6.2
세전이익	-8.3	-15.1	-7.3	24.1	-6.0	적지	적전	-5.3	N/A	-2.8
(지배)순이익	-8.4	-15.1	-7.3	20.3	-6.0	적지	적전	-5.3	N/A	-2.8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서부T&D,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78.2%	21.8%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서부T&D'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